



명씨대중회, 황제시제 봉행 및 종친 교류 확대 중경·무릉 일대 방문... 한·중 종친 만찬 통해 유대 강화

2025년 3월 23일~29일 (6박 7일)

명씨대중회(회장 명제태)는 2026년 3월 23일, 명씨 시조 명옥진 황제 제660주기를 맞아 전국에서 모인 36명의 종친과 함께 중경에 도착하였다. 이날 중경 소재 워드호텔 연회장에서 중경명씨종친 4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마련하였다.

명제태 대총회장은 만찬사를 통해 “한국 명씨와 중국명씨는 같은 일가”라며 명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말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결출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이어 중국명씨 명강 회장과 명양 부회장의 인사말과 덕담으로 만찬이 시작되었으며, 양국 종친들은 기념 촬영을 함께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중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대중회는 다음 일정으로 3월 24일 예릉으로 이동하여 시조 명옥진 황제 제660주기 추모제를 봉행하였다. 명노석 부회장의 정성 어린 제물 준비와 여러 종친의 헌신적인 봉사가 이어졌다.

초헌관에는 명제태 대총회장, 아헌관에 명기주 부회장, 종헌관에 명노석 부회장, 명효남 이사, 축관에 명순식 자문 위원장, 헌관에 명헌식 부회장, 명종수 종친, 명영재 종친, 명노관 종친이 맡아 엄숙한 분위기 속에 추모제를 진행했다. 추모제를 마친 후에는 한·중 종친들이 함께 모여 기념 촬영과 덕담의 시간을 나누었으며, 이어 중국 종친들의 시조 황제에 대한 추모제가 이어졌다. 시조 명옥진 황제께서 10년만 더 살아계셨더라면 중국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추모행사를 마무리했다.

<중경 장강 일대 탐방과 뿌리의 의미 되새김>

추모제를 마친 뒤 무릉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중경의 명물인 이자역(리쯔바역)을 관람하였다. 세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독특한 광경으로, 19층 높이 아파트 6층 중간을 관통해 모노레일이 지나가는 모습에

종친들 모두가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곳은 이미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 잡아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3월 25일에는 중경의 대표 관광지인 천생삼교를 찾았다. 천생삼교는 천연 석회암 다리로 이루어진 곳으로, 천룡교·청룡교·흑룡교로 이어지는 장대한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깊은 협곡과 어우러진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명소로, 웅장한 자연의 위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다.





다음 여정으로 장강 크루즈 멜로디 관광을 위해 크루즈에 탑승했다. 장강(양자강)은 총길이 약 6,300km에 달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강으로, 중국은 산샤 지역에 댐을 건설하여 형성된 수역을 활용해 관광 크루즈를 운영하고 있다. 3월 25일, 크루즈 선상에서 펼쳐지는 수려한 풍경을 감상하며 '풍도명산(귀신성)'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염라대왕 앞에서 생전의 행적을 심판받는다는 전설이 깃든 곳으로 알려져 있다. 3월 27일에는 시조 명옥진 황제와 주원장이 패권을 두고 겨뤘던 구당협곡과 장강 일대를 둘러보았다. 특히 1354년 면양 일대에 큰 수재가 발생했을 당시, 시조께서 1만 명의 군사와 50척의 군함을 이끌고 무협 일대에서 양식을 확보해 돌아와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였다는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 지역은 시조의 통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이자 촉나라(대하국)와도 관련된 역사적 공간으로, 명씨 종친들에게는 반드시 찾아야 할 의미 있는 성지로 여겨진다.





<이 지면의 사진은 단체 행사와 현지 방문의 다양한 순간을 담고 있다.>

3월 28일에는 마지막 일정으로 세계 최대 저수량을 자랑하는 산샤댐을 관광하였다. 이번 일정은 시조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의 뿌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종친들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한 뿌리로 이어져 있음을 확인했고, 그 여운은 앞으로의 걸음에도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중 종친이 함께한 이 만남은 세대를 잇고 마음을 잇는 뜻깊은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명씨대중보 편집국>



2026년 명대산악회 시산제 일시: 2026년 3월 14일(토)

종중의 전통을 잇고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다



명씨대중회 부회장 명영식

명씨대중회 산악회는 청양 문중 제실이 있는 물레산 정상 물레 바위 앞에서 뜻깊은 시산제를 올렸다.

이곳은 삼만오천여 평에 이르는 명씨 대종산과 소종산이 이어진 곳으로, 선조들의 숨결이 깃든 역사 깊은 장소이다.

이날 시산제는 종친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상의 뜻을 기리고 한 해의 안녕과 산행의 무사를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시산제는 종중의 전통을 되새기고, 종친 간의 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명함식·명노운 종친께서는 산길을 오르기 편하도록 사전에 풀을 베어 길을 정비했으며, 명효남 이사는 정성껏 고사떡을 준비해 시산제의 의미를 더했다. 이러한 손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산제를 위해 애쓴 종친들의 정성과 배려를 느끼게 했다.

또한 물레산 정상 바위와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과거 마을 청년들이 바위를 굴러 내려놓았던 일을 바로잡기 위해, 고 명위진 회장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시 바위를 정상으로 올려놓고 제를 올렸다는 일화가 내려오고 있다. 이곳 물레재 바위는 예로부터 물레재성이 있던 자리로 전해지는 유서 깊은 장소로, 종중의 역사와 함께 이어져 온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처럼 뜻깊은 장소에서 시산제가 봉행되며 종친들은 조상의 얼을 되새기고, 서로 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자연 속에서 함께한 시간은 종중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참여한 종친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시산제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맞아준 청양 문중 회장과 청양 종친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또한 자리를 함께한 종친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따뜻한 커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운 명형순 종친의 배려에도 감사의 마음이 이어졌다.

이번 시산제는 종중의 전통을 이어가는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동시에, 종친 간의 소통과 화합을 확인하는 자리로 마무리되었다. 함께 모여 제를 올리고 정을 나누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유대가 더욱 깊어졌고, 종중의 결속을 한층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자리는 앞으로도 종중의 전통을 이어가고 종친 간 연결을 지속해 나가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延安明氏 摠郎公派(총랑공파) 靑陽入鄉(입향)과정 및 宗親會探訪(탐방)



연안명씨 총랑공파 23세손 명형순

<지난 호에 이어 계속 이어집니다>

따라서 총랑공파 파시조인 3세조 현(愼)공동선조(愼,1378년탄생 추정)는 개성에서 서해 바다를 쳐다볼 때 아스라이 섬처럼 보이는 곳이 있어 부친 승(昇)의 바람대로 그 곳에 가기로 마음먹고 1400년~1410년 사이경 배를 타고 도착해 정착한 곳이 충남 태안인 것으로 여겨진다 필자는 조선전기 지리서로 중종25년 1530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 태안군 편에 유일하게 명(明)씨가 집단으로 씨족마을을 형성해 사는 곳의 명칭인 명씨촌성(村姓)이 있다는 기록을 발견, 1410년 전후인 약120여년전인 개성에서 충남 태안으로 총랑공파 파시조인 3세조 현(愼)이 첫 이거(移去) 해 4대에 걸쳐 명씨(明氏)마을을 형성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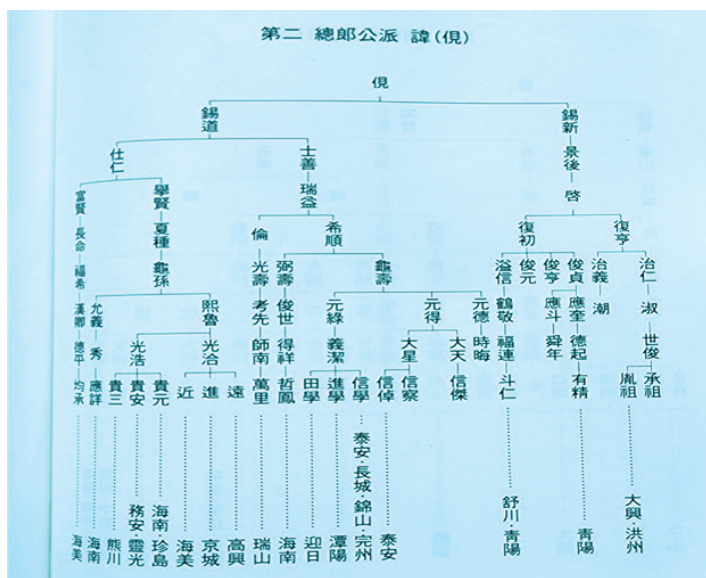
유추해보면 3세조 현(愼)은 부친인 승(昇) 황제가 1416년 60세에서 거 하기전 20세 전후 개성에서 혼인(1398년전후)하여 4세조인 석신이 탄생하자(1399년추정) 1400~1410년사이경 22세~32세 정도 될 즈음 배를 타고 가족인 처와 아들을 데리고 태안으로 이주하여 1400년~1402년사이 4세조 석도공동 선조가 탄생, 두 아들 모두가 성장한 이후인 작은아들 석도 방계 공동선조를 태안에서 살게 했다. (현,석도 방계 선조 후손 태안거주)

1425년경 전후 더 안전하고 생활하기 좋은 곳으로 큰아들 4세조 석신과 함께 배를 이용해 당진 앞바다를 거쳐 아산만으로 들어와 삼교전을 따라 오다 청양에서 흘러온 신양천과 광시면 방향에서 온 무한천이 예산군 대흥면 탄방리앞에서 합류해 하천폭이 넓고 깊어 배가 떠 다녀 조상을 섬기기 위해 개성과 한양, 태안을 오갈 수 있다.

또한 마을앞엔 퇴적층이 형성되어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는등 천(川) 건너편은 청양에서부터 북행해온 앞에서 설명한 산줄기가 끝나는 지점이고 뒷산은 적당히 높아 즉 주역상 하늘과 땅이 만나 만물이 서로 통하고 화합해 태평한 세상이 오며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 자손번영이 순조롭게 이어지는 지천태괘(地天泰卦)로 보이는 예산군 대흥면 탄방리로 이거해와 그곳에서 정착, 6대까지 (약180년) 거주하다 9세조 응규(應奎) 입향조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부득이 1593년 가계(家系)를 추스르고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아 청양으로 이주해온 것으로 보여 진다

※8세조 공동선조의 막내동생인 일신(溢信)방계선조 도 이때 보령으로 이거추정

총랑 공파 가계도(家系圖)



쇄미록, 여주이씨 홍주파 가승세고록과 증봉집에”이광륜“ 의병장 기록 내용으로 청양 입향 (入鄉)년도 유추

쇄미록은 인조(6년) 1628년에 영의정을 지낸 오윤겸의 부친이며 삼학사 오달제의 조부인 “오희문”이 선조24년 1591,11,27~1601, 2, 27일까지 9년3개월 동안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한양등 전국을 피난다니는 동안 왜란의 전황과 당시 지배층과 백성들의 생활상등을 자질구레한 것까지 기록한 일기로 학계에서 가치가 인정되어 난중일기 징비록과 함께 3대 보물로 지정된 일기책이다

쇄미록과 여주이씨 홍주파 가승인 세고록(청양 비봉면 방한리,양사리 행정리)에 의하면 의헌공(毅憲公)“이광륜”(李光輪) 의병장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직계선조이며 임진왜란 당시 남쪽지방에서 가장 부유한 이우의 집안 장남으로 참봉직이 제수되었으나 관직에 나가지 않고 선비로 살던 중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왕(王)인 선조가 의주로 몽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왕을 호위하고자 충효 정신을 발동해 근왕의병을 모집하기 위하여 부친인 “이우”에게 찾아가 허락을 받고자 하였다.

부친인“이우”는 나라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잘 생각하였다면서 선비는 왕을 위하여 목숨을 받쳐야 충신이 되고 충신의 부친은 효자의 아버지가 되므로 이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길 이라고 허락하자 “이광륜”은 인친호의자가 동촌정(姻親好義者家僮村丁:인척과친척,의로운사람,집안노비,마을장정등)을 대상으로 300여명을 모집하여 노비(僮은노비임)는 전투하면서 공이 있을시 면천해 주고 참여한 의병에게 토지등 물질적,금전적 보상을 해 준후 사비와 가산을 팔아 무기,식량을 사서 1592년 6월 중순경 온양에 도착, 배를 타고 의주로 가려고 기다렸다.

때마침 증봉 “조헌”의병장을 만나 현재 청주성이 왜군에게 점령당 했는데 의주를 가면 왜군들이 뒤에서 쳐들어 올 것인바 우선 청주성부터 해결한 후 가자고 권유하여 의병300여명을 대동해 그곳에서 우리 명씨 방계선조 종친인 명광계 평택 현감(관군의병포함 300명)을 만나 합동으로 공격하여 청주성을 탈환한 후 재차 근왕의병으로 가기 위하여 함께 갔었던 의병을 대동, 배를 타려고 온양으로 다시 왔었다. 조헌 의병장이 재차 온양으로 찾아와서 지금 남해안 바다길이 막히자 전라도로 침공한 왜군1만여명이 금산성을 점령 하였다고 하면서 의주로 가려고 하던 것을 멈추고 금산으로 가서 왜군을 쳐서 부수고 성을 탈환하자고 함에 조헌 의병장,, 이광륜 의병장,,명광계 평택현감,승(僧) 영규대사는 기수를 돌려 관군의병 승군 포함1500여명이 금산 연근평 들판에서 고바야카와 히데카네등 타치마나 무네시게가 이끄는 왜군1만여명과 치열하게 일진일퇴 전투을 하여 화살이 모두 소진되고 관군등 후속지원군이 없어 급기야 육박전까지 별렸으나 중과부적으로 1592,9, 23일 현장에서 전원 장렬하게 순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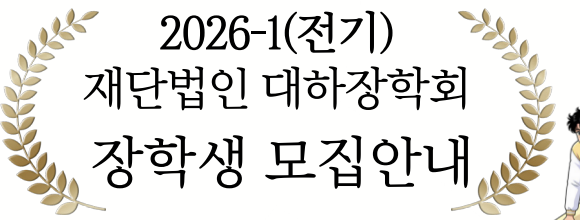
※ 조헌의병장, 청양 이광륜의병300명, 명광계 관군의병300명,청양 임정식의병100명, 승 영규대사 승병800명, 계1500명

<이하 내용은 대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원작에 충실하게 집필된 내용을 토대로, 원작의 구성과 서술 방식을 유지하여 그대로 게재한 원고입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편집 외에는 별도의 수정이나 변경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단법인 대하 · 파안장학회 2026-1(전기)장학생 선발

중중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5월 8일 등기우편 마감



2026-1(전기)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장학생 모집안내

모집 대상 신청 자격	<p>대하장학회 선발 본인또는 부모가 명씨인학생</p> <p>본인 또는 부모가 명씨인 대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재학생으로서 KCI등재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2026년 내 논문 게재 가능자(2인 이하 연구, “이 논문은 2026-1 재단법인 대하장학회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사사 명기), 게재 후에는 발표된 학술 논문집 표지 및 게재논문을 장학회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야 함.</p> <p>또는 당해 학기 내 각종 경진대회, 공모전 등에서 수상 실적(상장 및 발표작품), 봉사실적 (교내외 봉사), 기타 활동 실적(교내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실적 및 활동 증명서)제출 가능자, 실적 내용을 장학회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야 함.</p> <p>●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자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함</p>
심사 및 발표	<p>대하장학회 홈페이지 발표</p> <p>장학생 신청자를 대상으로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신청서류 평가와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고 본 홈페이지에 발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재단법인 대하장학회</p>

명씨 중중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2026-1(전기) 대하장학회와 파안장학문화재단 장학생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재단법인 대하장학회는 2009년 설립 이후 중중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꾸준히 발굴하고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파안장학문화재단법인 역시 2019년 설립 이후 미래가 촉망되는 인재를 선발하여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두 재단은 학업 성취와 연구 역량, 교내외 활동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 모집은 명씨 종친 자녀 가운데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성과와 연구 실적 또는 각종 활동 실적을 갖춘 지원자를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특히 학술지 게재 논문, 경진 대회 및 공모전 수상 실적,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서의 성과가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 세부 제출 서류와 기준은 각 재단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접수 마감 : 2026년 5월 8일(금) 등기우편 도착분까지
- ✔ 접수처 :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16 한성대학교 연구관 714호
- ✔ 문의 : 명광주 대하장학회 이사장(010-4267-3610)

최종 선발 결과는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홈페이지(<https://www.paan.or.kr/index.php>)와 파안장학문화재단법인 홈페이지(<https://www.deaha.or.kr/index.php>)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명씨대중회 관계자는 “장학사업은 중중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종친 자녀들이 학업과 연구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모집을 통해 많은 인재가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종친 자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명씨대중보 편집국〉

명씨대중회 산악회, 남한산성 4월 정기 산행 성료 봄기운 속 화합의 산행, 종친 간 우애와 결속 다져



명씨대중회 산악회는 지난 4월 11일 토요일, 남한산성 일원에서 4월 정기 산행을 진행하며 종친 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산행은 남한산성역에서 출발해 약 2시간에 걸쳐 수어장대 정상까지 이어졌으며, 전날 비로 맑아진 공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일부 구간에서는 체력적인 부담도 있었지만, 연로한 종친들까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완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정상에서는 먼저 도착한 종친들이 후발대를 맞이하며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하산 이후에는 담소를 나누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고, 명영수 감사가 준비한 커피가 더해져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명대산악회는 앞으로도 종친 간 화합과 건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산악회 회원들은 “함께하는 산행 속에서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 산악회의 힘”이라며 “앞으로도 종친 간 화합과 건강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명씨대중회 명대산악회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정기 산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산행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오는 5월 열리는 명씨대중회 정기총회에서 종친들과 다시 만날 예정이다.



2026년 명씨대종회 총회 개최

제48차 정기총회 안내 2026년 5월 5일(화) 11시 장소 | 파주 경모사

이번 정기총회는 종중의 전통을 이어가고 종친 간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 주요 안건을 공유하며 향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인 만큼 종친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

종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종회의 내일을 더욱 굳건히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함께하는 자리에서 서로의 뜻을 나누며 더욱 깊은 공감과 화합의 시간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명씨대종회 사무국〉

2026년 명씨대종회 제48차 정기총회 안내

2026년 명씨대종회 제48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상의 얼을 기리고

대종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자리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시어 자랑스러운 황손의 후예로서
우리 명씨대종회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함께 기원하고,

종친 상호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명씨대종회 회장 명제태 배상



일시 | 2026년 5월 5일(화) 11시

장소 | 파주 경모사

明氏大宗會

찾아 오시는 길

P

주차안내 : 자가용

강변북로 → 자유로 → 당동IC → 37번 국도 → 법원리 방향

📍

네비게이션 주소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파평산로 408번길 49

버스 이용 시

경원선 종점 문산역 하차 후 택시 이용

(택시비 약 10,000원 내외)

주소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파평산로 408번길 49

문의

사무총장 명영철 (☎ 010-8551-6936)

참조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392801-04-176571

명씨대종회는 종친님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대종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明氏大宗會

신뢰할 수 있는 기업

태흥산업기전(주) ■ 태흥기전: 명영준(25세손)

수 •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전문 제작업체

30여년간 전통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부한 설계 및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협력사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고객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기업으로 기억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taeheungsanup.co.kr

<주요생산품목>

수, 배전반 Moter제어반 중앙감시제어반
계장제어반 분전반 출전기 집합 계량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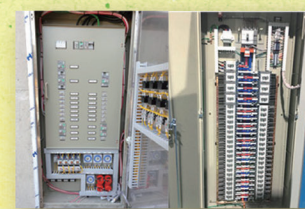
고압배전반



전동기 제어반



저압배전반



분전반반

종친 애, 경사 및 동향

- 부음** 2026.02.05 명해춘님 부인 정영순님 별세
2026.02.27 명한주님 모친 정옥순님 별세
2026.04.12 명노승님 부친 명효식님 별세
- 혼사** 2026.03.28 명재신님 딸 명라연님 결혼



명씨대중보 문의 및 구독신청

- ▶ 명씨대중보 발행인
명제태 회장 010-2399-6233
이메일 jayatool521@naver.com
- ▶ 명씨대중보 편집국장
명영식 부회장 010-6233-8204
이메일 mys3540@hanmail.net
- ▶ 명씨대중보 편집인
명영철 사무국장 010-8551-6936
이메일 my1857@naver.com

명씨대중회 종친 회비 및 후원계좌 안내

명씨대중회 발전을 위해 협찬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후원 계좌입니다
국민 392801-04-176571
명씨대중회

본 면은 광고란입니다.
광고 게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대중회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명씨대중보 기사투고 및 광고안내

- ▶ 명씨대중보는 3개월에 1번씩, 연간 4회 발행되는 우리 명씨의 신문입니다.
기사 및 사진 투고는 연중무휴 가능하오니, 종친들의 많은 투고 바랍니다.

(주) 비경

페인트, 방수 시공 전문 업체

경기도 의왕시
1위 업체



福 을 칠해 드립니다.



■ (주)비경 : 대표 명노성(23세손) 010-3799-5700

- 빌딩 / 상가 / APT
- 병원, 주차장, 옥상
- 방수 및 단열 공사
- 시공 전문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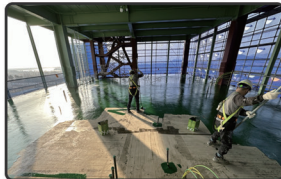
Tel. 031-462-5507
FAX. 031-462-5508
Email. bkc9704@naver.com



상업, 주거시설
내·외부 도장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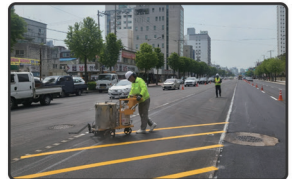
조형물 등
특수 도장 공사



옥상, 주차장바닥
방수 및 에폭시 공사



우레탄 단열공사
내화, 흡음 뽀칠 공사



주차장, 도로, 공원
차선 도색공사

정담의전

■ 정담의전: 명재익(24세손) 010-9922-0042

장례서비스, 전액 100% 환불제
믿을 수 있는 정담의전이 함께합니다.

명씨대중회와 협약된 정담의전은 거품 없는 합리적 가격과
품격 있는 장례 토탈 서비스를 전액 환불제로 제공합니다.

상품가격 330만원



상담 전화

장례 절차와 상품 예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1644-1350



임종 전화

임종 접수 및 신속한 대응으로
유가족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1588-4844